



#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 (2026년 5월 호)



## 새로운 시작을 향한 졸업생들의 이야기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졸업을 맞이한 졸업생들 가운데, M.Div. 과정의 송영한, 박성진 졸업생과 Ph.D. 과정의 정희영 졸업생의 소감을 나눕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배움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전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의미 있는 울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D.Min. 과정 졸업생들의 소감은 오는 6월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사진: 박성진 졸업생〉

3년 동안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은, 사명(Vocation)이 결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은 공동체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의 부르심을 넘어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지향하는 하나님의 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이루어 가기 위해 공동체는 서로를 지지하며, 한 사람의 헌신 뒤에는 언제나 공동체의 동행과 지원이 있습니다. 결국 사명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참여와 헌신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클레어몬트에 오게 된 것과 학업을 이어올 수 있었던 과정 역시 공동체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3년 전, 한국에서 대외협력처 부총장을 맡고 계셨던 이종오 박사님의 소개로 강신욱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을 통해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을 받으며 유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LA 연합감리교회와의 만남 역시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학교의 캠퍼스 이전으로 거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경식 교수님의 연결로 이창민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교회에서 숙소와 사역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고,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안정섭 목사님의 지속적인 배려와 지원 또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걷는 여정이며, 받은 은혜를 다시 공동체에 흘려보내는 삶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클레어몬트를 떠나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뉴저지의 드류 신학교 MA 과정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Catherine Keller 교수님의 지도 아래 과학과 신학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공동체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3년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진: 송영한 졸업생〉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6년 5월에 M.Div.과정 졸업을 앞둔 송영한입니다. 신입생으로서 소감을 작성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이제 졸업할 때가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졸업이 다가오니, 제가 처음에 유학을 준비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비자 인터뷰를 준비하던 중 저는 CST에 유학을 가는 이유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CST가 LA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를 배워보고 싶다고 이유를 적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는데, 졸업할 때가 다가오니 제가 무엇을 배웠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CST에 와서 가장 감사했던 것은 공동체와 환대였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한국인으로 유학을 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CST 공동체는 다문화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나 환대받을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고, 모든 사람이 중요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수업에도 잘 드러났습니다. 수업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험을 통해 서로가 배울 수 있는 창조적인 교실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귀중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고, 공동체 안에서 이 자원들이 공유될 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CST의 핵심 가치인 공감, 정의, 소속감을 수업 공간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을 어떻게 공동체에 녹아낼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진로에서는 CST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하며, 환대받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CST에서 졸업한 후에는 약 1년 동안 LA에 더 머물 예정이며, 내년에 KMC 목사 안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기독교 윤리학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진: 정희영 졸업생〉

박사 과정을 마무리하고 졸업을 앞두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마음은 감사입니다. 공부의 여정은 결코 혼자 걸어갈 수 없는 길이였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막막한 순간도 있었지만, 클레어몬트 모든 교수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 따뜻한 응원, 그리고 한국에 계신 가족과 교회의 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의 연구는 한국 할머니들의 생태 지혜와 삶의 실천을 중심으로 생태신학, 과정신학, 포스트식민주의 신학을 함께 엮어 보는 작업이었습니다. 특히 일상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여성들의 지혜가 오늘날 생태 위기 시대에 어떤 신학적·윤리적 통찰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저는 신학이 추상적인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와 고통의 역사, 그리고 희망의 실천 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Claremont School of Theology에서의 시간은 제게 학문적 훈련의 시간이자, 신앙과 삶을 새롭게 성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만나며, 신학은 서로 대화하고 배우며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과정신학과 생태신학, 여성신학과 포스트식민주의 신학을 공부하며 하나님과 세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더 넓고 깊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논문을 지도해 주신 Wm. Andrew Schwartz 교수님, Grace Kao 교수님, Philip Clayton 교수님, 그리고 Catherine Keller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멀리 중국에서도 언제나 따뜻하게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Andrew 교수님, 아낌없는 조언과 귀한 가르침의 기회를 열어 주시고 잊지 못할 선물도 주셨던 Grace Kao 교수님, 학문적 여정 가운데 언제나 깊이 있는 조언과 통찰을 나누어 주신 Philip Clayton 교수님, 그리고 뉴욕에서 뵈 때마다 삶과 학문의 길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귀한 아이디어와 지혜를 나누어 주신 Keller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들의 지도와 격려 덕분에 이 긴 박사 과정의 여정을 한 걸음씩 걸어올 수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앞둔 지금도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아낌없이 응원해 주고 격려해 준 사랑하는 가족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수업이 있을 때마다, 학회에 참석해야 할 때마다, 논문을 써야 할 때마다 어린 딸을 기꺼이 돌보며 저의 길을 묵묵히 응원해 준 남편 덕분에 이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두 딸 역시 제게 큰 기쁨과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컸고, 제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배운 것을 삶과 사역, 연구와 가르침의 자리에서 겸손히 나누며, 교회와 세상 가운데 생명과 정의, 돌봄의 가치를 증언하는 신학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와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여정 또한 기도와 배움, 섬김의 마음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 한인학생회 졸업식 및 종강모임

**종강모임 : 2026년 5월 18일 (월) 오후 5시**

**장 소 : Hodori Korean Cuisine  
7315 N. Figueroa St., Suite 102  
Los Angeles, CA 90041**

**졸업식 : 2026년 5월 19일 (화) 오후 3시**

**장 소 :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10497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24**

**문 의 :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국제협력처  
kef@cst.edu**

- 다 함께 모여 한 학기 동안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원활한 모임 준비를 위해 참석 가능 여부를 4월 중 보내드린 이메일을 통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DPC 프로그램 신입생 소개

전문상담학 박사(Doctor of Professional Counseling, DPC) 프로그램에 두 분의 신입생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삶과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전문적인 돌봄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들의 배움이 개인의 성장을 넘어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두 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진: 구향미 신입생〉

반갑습니다. 이번에 DPC 과정에 입학하게 된 구향미입니다. 먼저 이 과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지면을 통해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그동안 목회자이자 사회복지사로 사역하며 다양한 아픔을 지닌 분들과 그 아픔을 함께 나누어 왔지만, 늘 마음 한켠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아쉬움과 부족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상담학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던 중, 친구의 소개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상담 박사과정을 알게 되었고, 저에게는 한 줄기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학교의 정보를 찾아보며 배움의 기회를 고민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DPC 과정의 커리큘럼과 교수진을 살펴보면, 이곳이라면 이론과 실천이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제가 성장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들의 지도와 먼저 이 길을 걸어온 선배들, 그리고 동료들이 든든한 힘이 되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동시에 이 여정에 대한 기대도 큼니다. 이 배움의 시간은 저 자신을 깊이 이해해 가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될 것이며, 그 안에서 이루어질 성장과 성숙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과 기대 속에서 서 있는 이 출발선에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 힘이 아닌 성령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6)



<사진: 조현정 신입생>

새로운 배움의 문 앞에서 있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DPC 과정(5기)을 시작하게 된 조현정입니다.

처음 이 과정을 준비하며 주저하던 저에게 “시작해서 가다보면 어느새 그 자리에 가 있게 된다”라는 조언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준비되어야만 시작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완벽한 준비보다 순종의 걸음이 먼저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학문의 여정과 새로운 배움의 과정이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까지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연합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마친 이후에도 배움의 자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음은 큰 은혜로 느껴집니다. 특히 한국어로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이라는 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도 학문과 영성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일상과 사역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배우고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과정의 의미는 더욱 깊습니다.

DPC과정은 단순한 학업을 넘어, 제 삶과 사역을 새롭게 빚어가는 여정이라 생각합니다. 사모로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울고 기도해 온 시간들이 이제는 더 깊은 이해와 건강한 돌봄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배우는 모든 내용이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지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끄실 것을 신뢰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가다 보면 가 있게 된다”라는 이 고백이 앞으로 모든 배움과 걸음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다시 저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배움을 통해 경청과 공감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한 영성 위에 전문적인 상담의 언어를 더해가고 싶습니다. 사모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상담자로서 한 영혼의 이야기를 더 깊고 진실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게 된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6년 여름학기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 신입생 소개

2026년 여름학기,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에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일곱 분의 신입생을 소개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쌓아온 목회적 경험과 신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이제 더 깊은 배움과 실천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 여정이 개인의 성장을 넘어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며, 아래에 일곱 분을 소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여름학기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갈등, 치유, 변혁을 위한 실천신학)에 입학한 고성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대학 강의와 채플 사역을 담당하며, 복음에 기초한 삶의 가치에 대해 학생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무종교인이 다수를 이루는 환경 속에서, 신앙이 삶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의식이 본 과정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천신학을 통해 신앙과 삶을 잇는 사역을 더욱 깊이 탐구하며, 배움과 실천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진: 고 성 목사〉



〈사진: 고재일 목사〉

Halo! 저는 인도네시아 찰레곤이라는 지역에서 한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고재일 목사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찰레곤은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이슬람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으로서 전체 인구의 약 98%가 무슬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머지 1~2%의 주민들은 기독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무슬림 사회 속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목회자이지만 그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기 어려운 현실은 저에게 ‘나는 누구인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하였습니다.

때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사역에 몰두하기도 했지만, 좀처럼 바뀌지 않는 현실과 이민자의 삶이라는 환경 속에서 오히려 깊은 고독과 상실을 마주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신학대학교 동기로부터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에 대해 소개받게 되었고, 학교가 강조하는 긍휼과 정의, 그리고 소속감이라는 핵심 가치들이 제가 마주하고 있는 목회적 현실과 내면의 질문을 신학적으로 성찰하며 풀어갈 수 있는 귀한 배움의 자리라는 확신을 갖게 하였습니다.

입학을 하면서 갖게 되는 가장 큰 기대는 개인적 갈등의 회복과 성숙입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며, 특히 이슬람 문화 속 이민 목회 가운데 마주해 온 내면의 질문과 갈등을 보다 깊이 해석하고 이해함으로 그동안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사역의 한계나 환경의 어려움으로만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이 배움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으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나의 내면을 더욱 정직하게 마주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처음 부르셨던 선교적 사명을 다시 회복함으로 다른 종교와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이어지는 목회로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진: 김한진 목사〉

안녕하세요. 저는 2026년 겨울학기에 입학했으나 첫 학기를 이번 여름학기부터 시작하게 된 김한진입니다. 저는 현재 뉴욕에 위치한 청암감리교회에서 이민 2세들을 대상으로 사역(EM)을 하는 목회자로서, 신앙과 정체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많은 고민과 씨름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민 2세들이 '나는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라는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겪는 내적 갈등과, 부모 세대와의 언어적·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긴장과 단절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목회적 돌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로 하여금 단순한 사역의 수행을 넘어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실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실천신학은 저에게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현장의 경험을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그 통찰을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 고민하던 끝에, 최고의 환경에서 교수진과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본 과정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의 학업을 통해 이민 교회와 2세 공동체가 겪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실제 목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통찰과 방향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동료 목회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시야를 넓히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학업의 여정을 통해 더욱 성찰적이고 책임 있는 목회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교회와 특히 제가 섬기고 있는 이민 사회 내 한인 공동체를 위해 보다 깊이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백성현 목사〉

안녕하세요. 이번 2026년 여름학기에 입학한 백성현 목사입니다. 이번 지원에 앞서 저는 스스로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목회학 박사인가?’, 그리고 ‘왜 클레어몬트인가?’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2009년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 어느덧 목회의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목회자로서 남은 목회를 깊이 있고 탄력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목회학 박사과정에 지원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저는 다음 세대와 노년 세대를 연결하는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세대 사이에서 신앙과 삶을 잇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깊이 있는 신학적 성찰과 실제적인 목회 전략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노년층이 요양원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흔들림과 실존적 불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돕는 목회가 절실하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이중직 목회, 돌봄 사역, 그리고 선교적 전략이 통합된 새로운 목회 모델을 연구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사역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때문입니다. 여름과 겨울 인텐시브 과정과 온라인 강의는 저의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도 학문적 성장과 성숙을 가능하게 합니다. 갈등, 치유, 변혁을 지향하는 실천신학 중심의 프로그램에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을 통해 접한 질적 연구의 탁월성, LA에서의 수련목회자 경험을 통해 형성된 미서남부 지역에 대한 이해와 친숙함도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무엇보다 감리교 전통 위에 다양한 교단의 교수진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학문적 공동체는, 더 넓은 시야와 관계의 확장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배움에 대한 용기와 필연적인 도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과정에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사진: 이강화 목사〉

할렐루야! 베트남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강화 선교사입니다.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 오목천감리교회 소속 목사로, 가족으로는 아내와 다섯 공주들이 있습니다. 2001년 11월 베트남 호치민시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호치민시 구찌 지역에서 에덴동산 한국냉동센터를 중심으로 베트남의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섬기는 사역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5년 9월부터 안식년을 맞아 귀국하여, 지난 25년간의 선교 사역으로 약해진 몸과 마음을 돌보고 치료하며, 그동안의 사역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워진 신학과 선교학을 탐구하고 학습함으로써 앞으로 남은 10여 년의 후반기 사역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러던 중 동기인 목원대학교 교수님의 소개로 클레어몬트 D.Min. 학위 과정을 알게 되었고, 김남중 교수님의 안내를 통해 2026년 겨울학기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여름학기부터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7월에 시작되는 수업을 통해 큰 은혜와 도전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5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학업이라 설레기도 하고 다소 낯설기도 하지만, 다섯 공주들과 (이제는 손녀까지 여섯 공주입니다) 가족의 응원 속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이정진 목사〉

저는 한국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의 이정진 목사입니다. 2025년 1월 첫 주까지 대형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사역을 이어오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작은 꿈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40세쯤 되면 ‘교회를 개척하여’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대로 목회를 해보고자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2025년 1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 개척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인천 구월동에서 공간을 빌려 예배드리고 있으며, 교회의 이름은 ‘별빛교회’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붙들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개척 후 약 2년의 시간을 지나며 여전히 부족함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의 과정을 통해 더 넓고 다양한 시각을 배우고 연마하여, 목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자 합니다. 최선을 다해 배우겠습니다.



〈사진: 최길완 목사〉

안녕하세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에 입학하게 된 최길완 목사입니다. 저는 현재 목원대학교 내에 위치한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대전서남지방 목원대학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안에서 사역하다 보니 클레어몬트 박사 과정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건과 더불어 부사역자로서의 일정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담임목사님의 따뜻한 권유와 격려에 힘입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역 환경이 이전보다 더 여유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인도하심이라 믿습니다. 이번 박사 과정을 통해 목회자로서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제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쁜 마음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5-2026년 기부 현황

차세대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귀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2025년 7월부터 2026년 5월 기준 -

이경식 부총장  
육성수 목사  
보라매열린교회 (육성수 담임목사)  
이종오 박사  
이한슬 박사과 이레이첼 박사  
LA 연합감리교회  
정동제일교회  
강신욱 목사  
월셔연합감리교회  
박성숙 사모

임용빈 장로  
이창순 목사  
이삼휘 장로  
박정은 박사  
김웅민 목사  
신영각 목사 신영기 사모

\*성함은 기부일자 순입니다.

**기부총액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1일 기준): \$193,485**

- KEF 잔액(1990.03 - 2026.05):	\$2,611,654
- KLS 잔액(2018.10 - 2026.05):	\$873,483
- General Fund(2024.03 - 2026.05):	\$13,728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Center For Korean American Ministries

- 2025년 7월부터 2026년 5월 기준 -

### 개인 후원

이병준 회장  
이상영 목사

### 단체 후원

남가주 한인 여선교회 연합회 (Sue Kim 회장)  
드림교회 (최요셉 목사)  
서부지역연회 (Grant Hagiya 감독)  
예수동행교회 (안정섭 목사)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남재현 목사)  
월셔연합감리교회 (이영성 목사)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영 목사)  
크리스찬위클리 (조명환 목사)  
Cal-Pac 연회 한인 코커스 (이석부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용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이창민 목사)

\*본 명단은 가나다 및 알파벳 순입니다.

**기부총액 (2025년 7월부터 2026년 5월 기준) \$14,200**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